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편집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09.5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미국 서부 3대항만,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공세-----	2
□ APM Terminals사, 콩고 Point Noire항 신항 운영에 참여-----	5
□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낙찰자, '09.7월까지 결정-----	6
□ 스웨덴 Gothenburg항, 민간 운영사 물색-----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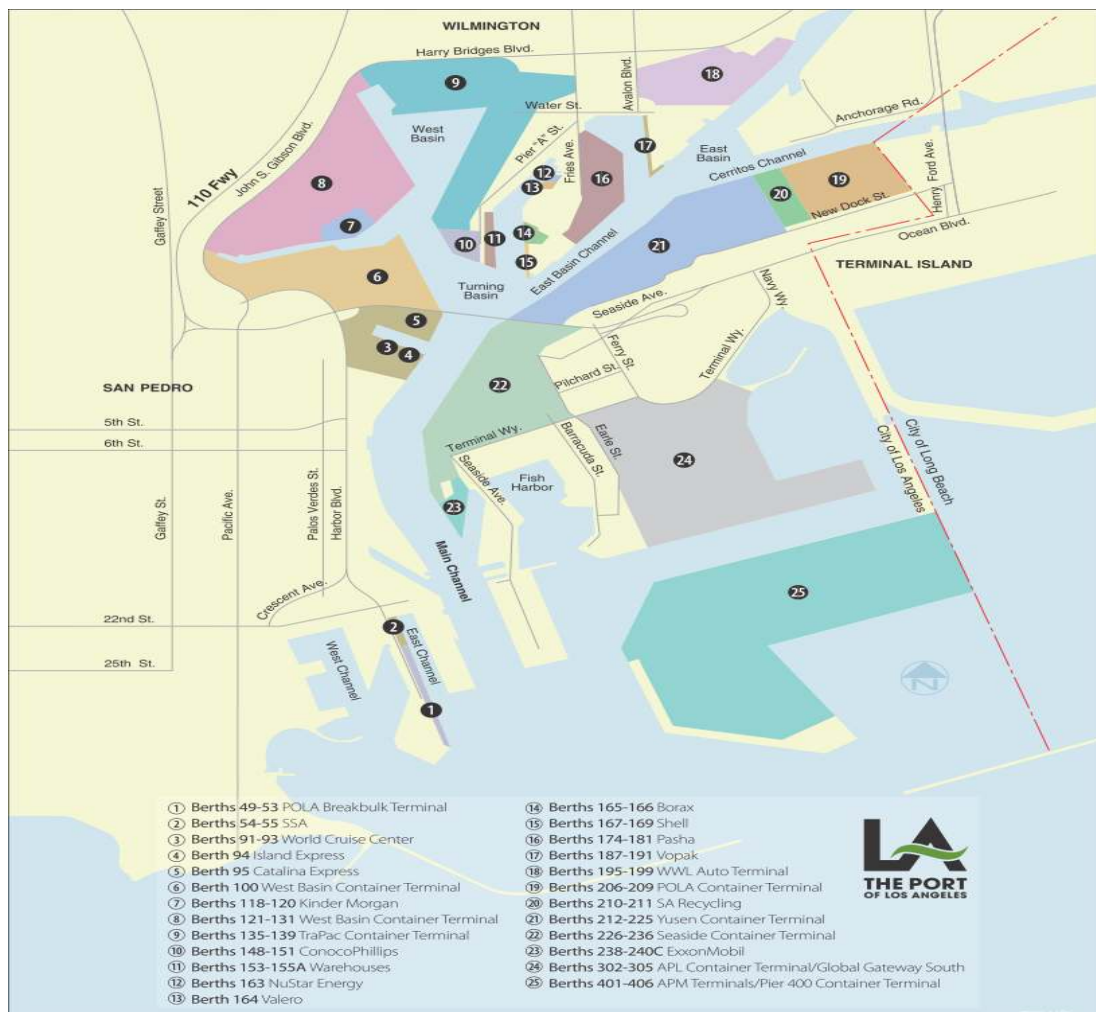
## □ 미국 서부 3대항만,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공세

## 【 Los Angeles항 】

## ○ Los Angeles항 개요

- 미국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2008년 7,849,985 TEU 처리(2007년 8,355,038 TEU 처리)
- West Basin Container Terminal 등 8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중

## &lt; Los Angeles항 港勢圖 &gt;



## ○ 2009.2.19 LA항 항만위원회(Los Angeles Harbor Commission)는 터미널운영사 및 선사에 대해 요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

- 터미널운영사에 대해서는 모든 복합운송 컨테이너(주로 철도와 추가 연계운송) 처리 항비를 10% 감면, 2009.1.1부터 소급하여 1년간 적용
- LA항의 복합운송 컨테이너의 비중은 전체 물동량의 약 41%에 달함
- 항만당국의 수입은 연간 1,300만불(약 1,700억원) 감소 전망

-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는 2009.5.1부터 1년간 2008년 물량을 초과 처리한 경우 TEU당 20불의 항비를 감면
- 항만당국은 소요 예산을 연간 90만불(약 12억원)로 추정

## 【 Long Beach항 】

### ○ Long Beach항 개요

- 미국 2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2008년 6,487,816 TEU 처리(2007년 7,312,465 TEU 처리)
- California United Terminal 등 7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중

### < Long Beach항 港勢圖 >



### ○ Long Beach항 항만위원회(Long Beach Board of Harbour Commissioners)는 2009.4.21 세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확정

- 2009.5.4부터 민간금융기관의 용자로 구입한 트럭이나 LNG 사용트럭에 대한 청정 트럭수수료(TEU당 35불) 적용 면제
- 당초 2009.7.1 시행예정이던 인프라수수료(TEU당 6불) 징수를 2010.7.1부터 징수기로 연기
- 2009.5.1부터 1년간 부두운영사들에 대해 복합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부두사용료 10% 감면
  - 이로 인해 항만당국의 수입 연간 1,100만불(약 1,400억원) 감소 전망
- 2009.5.1부터 Long Beach항 기항 선사들이 2008.5~2009.4 컨테이너 물량을 초과 처리할 경우 TEU당 20불씩 부두사용료 감면
- 他州 등록 트럭의 1일 통행료를 30불로 할인



**청정트럭 프로그램(Clean Truck Program) 제도**

- 미국 LA항과 Long-Beach항에서는 2009.2.18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화주로부터 청정트럭수수료 (Clean Truck Fee) 징수를 개시 : TEU당 35불, FEU당 70불
- 당초 2008.10.1부터 징수 예정이었으나 화주들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제소 등 반발로 2009.2.18부터 시행
- 항만 출입 트럭의 배기가스 오염을 80% 감소하기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2007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트럭들의 항만출입을 금지하는 제도

**【 Oakland항 】**

## ○ Oakland항 개요

- 미국 5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2008년 2,236,244 TEU 처리(2007년 2,387,911 TEU 처리)
- Maersk Sealand Terminal 등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중

**< Oakland항 港勢圖 >**

Berths 20 - 22, 23, 24 : Maersk Sealand Terminal

Berths 25 - 26: TransBay Container Terminal

Berth 30 : TraPac Terminal

Berths 32-34 : Outer Harbor Terminal

Berths 35, 37 - 38 : Ben E. Nutter Terminal

Berths 55 - 56 : Hanjin Terminal

Berths 57 - 59 :

Oakland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Berths 60 - 63 : APL Terminal

Berths 67 - 68 : Charles P. Howard Terminal

## ○ 터미널운영사에 대해 복합운송 컨테이너 TEU당 5불의 항비를 감면

- 2009.1.1부터 소급하여 1년간 적용

## ○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는 2009.5.1부터 1년간 2008년 물량을 초과하여 수송하는 경우 TEU당 20불의 항비를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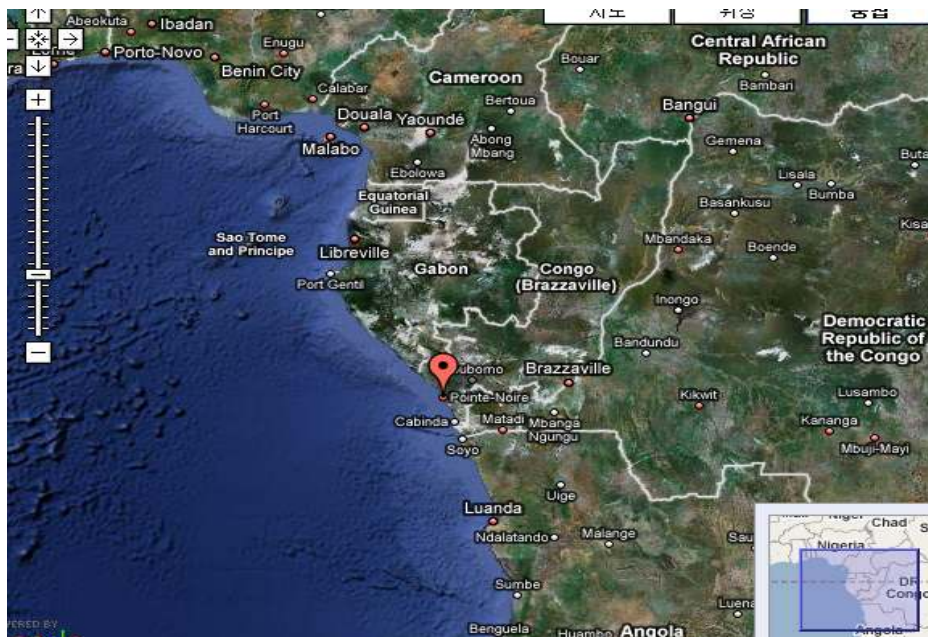
자료 : LA Business Journal 2009.2.19, LA Times 2009.2.23, Press Telegram 2009.2.26, Lloyd's List 2009.3.10, Journal of Commerce 2009.3.16, Journal of Commerce 2009.4.25, Fairplay 2009.4.29

## □ APM Terminals사, 콩고 Point Noire항 신항 운영에 참여

### ○ 콩고 Point Noire항 개요

- 1939. 4. 1 개장된 항만으로서 현재 9선석(길이 530m, 수심 10.25m)으로 2008년 20만 TEU 처리(처리능력은 25만 TEU)

### < Point Noire항 위치도 >



### ○ 신항사업의 내용

- 총사업비 5억 7천만 유로(7억 5,400만불, 약 9,800억원), 사업자에게 27년간 운영권 (Concession) 부여, 2020년에는 연간 100만 TEU 처리능력 확보
  - ) 1단계 사업 : 선석 270m를 추가 건설하여 800m로 확장, 수심 15m로 증심하여 최대 7,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용
  - ) 2단계 사업 : 선석 1,500m를 추가 건설(수심 13~15m)
- 컨테이너 야드장을 현재의 17ha(17만m<sup>2</sup>, 약51,000평)에서 38ha(38만m<sup>2</sup>, 약115,000평)로 확장하고 Quayside 갠트리 14기, 야드 갠트리 34기를 설치

- 신항사업 운영권자 : 프랑스의 Bolloré 그룹 컨소시움
  - 2008.12.23 콩고정부와 프랑스의 Bolloré 그룹은 운영권 부여계약에 서명
  - 컨소시움 구성
    - ) Bolloré Africa Logistics사, Socotrans사, Samaritisa, Translo사 등 4개사로 구성
  - 컨소시움이 총 사업비중 5억 유로를 조달하고, 나머지 7천만 유로는 국제투자자들과 Point Noire 항만청이 투자 예정
- 덴마크의 APM Terminals사는 뒤늦게 위 컨소시움에 일정 지분참여와 동시에 운영사로 참여
  - ※ APM Terminals사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로서 2008년에 총 50개의 해외 터미널에서 3,400만 TEU를 처리
    - 총 매출액 31억불(약4조원), 5억 7천만불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전 영업이익)를 기록하여 18.4%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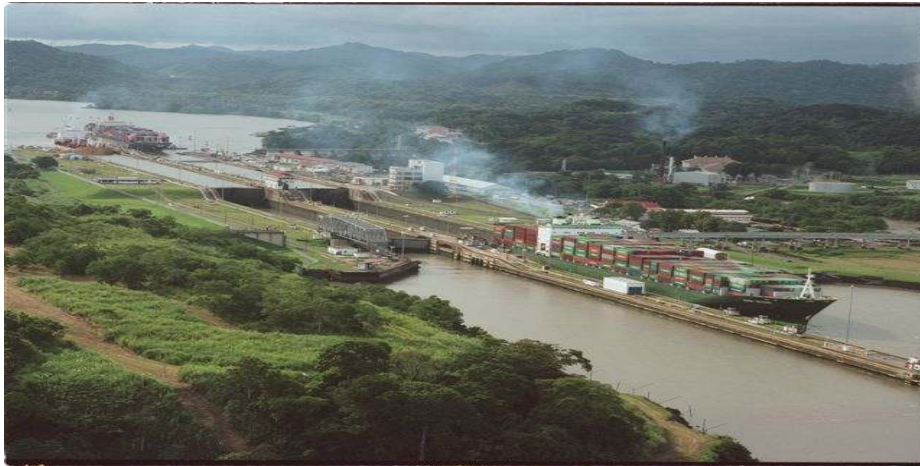
자료 : Lloyd's List 2009.3.6, 2009.4.30, Reuters 통신 2009.5.1

## □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낙찰자, '09.7월까지 결정

- 파나마 운하 현황
  -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약 80km의 갑문식 수로
  - 위치에 따라 16~25.9m나 해수면보다 높아서 운하 안에 여러 개의 갑문을 설치하여 이러한 갑문을 통과토록 하는 갑문식 운하
  - 1914년 미국에 의해 개통되었으며 2000.1.1 미국이 파나마에 운영권 반환
  - 갑문의 최대 폭은 33.53m, 길이는 304.8m
  - 통항 가능 최대 선박(PANAMAX선) : 폭 32.3m, 만재흘수선 12m, 길이 294.1m
  - 365일 24시간 가동(종사인력 약 9,000명), 2008년 14,702척의 선박 통항, 세계 전체 교역량의 5% 물동량 운송 선박이 통과
  - 운하 통행료는 선박의 화물 적재톤수에 따라 부과, 화물 선적시와 空船 통행시의 요율에는 차이
    - ) 4,000TEU 적재 컨테이너선 통항시 약 25만불(약 3억 3천만원)의 통행료 납부
  - 파나마는 운하 통행료 수입으로 2008년에 총 21억불(약 2조 7,300억원)을 징수



## &lt; 파나마 운하 &gt;



## ○ 확장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 52억 5천만불(약 6조 8,000억원), 2014년 완공의 Design & Build 방식
- 현재의 도크를 최대 12,000TEU급 컨테이너선(길이 427m, 폭 55m, 만재흘수선 18.3m)의 통행이 가능토록 확장하는 공사
- 파나마운하청(ACP : Panama Canal Authority)은 2008.12 총 사업비 중 23억불을 차관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5개의 해외 금융단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체자금(운하 통행료 수입 등)으로 조달 예정

금 융 기 관 명	차관공여액(백만불)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800
European Investment Bank	500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400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300
Andina de Fomento	300
계	2,300

## ○ 2009.3 최종 적격 입찰자로 등록된 3개 국제컨소시엄에는 11개국, 23개 기업이 참여

- ① 이태리 Impreglio 컨소시엄      ② 미국/일본 컨소시엄(Bechtel사 등)
- ③ 독일/스페인 컨소시엄(Hochtief사 등)

※ 세계 물류항만업계는 파나마운하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12,000TEU급 선박의 파나마운하 통과가 가능해 저 미국 서부항만의 위축과 미국 동부항만의 상대적인 활성화 등 기존의 세계 물류질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

자료 : American Shipper 2008.10.24, Gulf News 2008.12.7, Cargonews Asia 2008.12.9, Traffic World 2009.2.23, Lloyd's List 2009.3.5, Reuters 통신 2009.5.5

## □ 스웨덴 Gothenburg항, 민간 운영사 물색

## ○ Gothenburg항 개요

- 스웨덴 최대의 항만으로서 2008년에 862,595 TEU 처리, 27만대의 자동차 선적, 크루즈/페리 승객 200만명 수송
- 항만시설 개요 : 컨테이너 크레인 11기, straddle carriers 39대, 부두 총길이 20km, 항만부지 360만m<sup>2</sup>(약 109만평), ro/ro ramps 20기
- 2008 경영실적 : 매출액 16억 4천만 크로네(약 2억 8백만불, 약 2,700억원), 당기순이익 75백만 크로네(약 950만불, 약 123억원)



## ○ 민영화 대상 터미널 : 컨테이너, ro-ro 터미널 및 자동차부두

- 현재는 시정부 소유 지방공기업인 Port of Gothenburg사가 항만을 운영 중이나, 2009년 말 까지 국제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



자료 : Port of Gothenburg, Lloyd's List 2009.4.30, 2009.5.5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